

## 이규준의 유기(遊記) 연구

정영문\*

### 〈차례〉

1. 서론
2. 이규준의 생애와 사회상 인식
3. 『석곡산고』 소재 유기(遊記)의 서술적 특징과 의미
4. 이규준의 여행 목적과 의미
  - 1) 유산(遊山)의 체험과 감흥(感興)의 기록
  - 2) 선유(先儒)의 방문과 구도(求道)의 여정
5. 결론

### 〈국문초록〉

이규준(1855-1923)은 조선 시대의 철학자이자 임상 실험을 기반으로 근대 한의학을 발전시킨 한의학자이다. 그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인물로, 유람과 선유와의 만남을 목적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때의 조선에서는 성리학 이념이 쇠퇴하고, 서구 문명이 확산하고 있었다. 정신적, 물질적 변화로 인해 사회가 혼탁해진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회 문제와 유학 이론을 선대 유학자와의 토론을 통해 타개하고자 했다. 그가 만나고자 했던 선대 유학자는 타지에 있었고, 그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속리산, 적상산, 계룡산, 동해안과 금강산, 서울 등 많은 지역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고, 그 여행지에서 자신의 견문과 감흥을 한시와 산문 〈서유노정기(西遊日程記)〉(1901), 〈금강일기(金剛日記)〉(1902), 〈입가야산기(入伽倻山記)〉(1909), 〈호유일기(湖遊日記)〉(1911), 〈호상재유일기(湖上再遊日記)〉(1913), 〈경도지(京都志)〉(1901) 등에 기록할 수 있었다. 그가 쓴 〈금강일기〉, 〈호유일기〉, 〈호상재유일기〉는 매일 매일의 일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적을 위주로 기록한 것이다. 이들 여행기가 풍부한 소재와 다양한 자료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허황되지 않은 정보’만을 선별하여

\*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기록하려는 태도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런 까닭에 유기에서 발견되는 지역의 전설과 제명을 기록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 이 기록들은 최종락을 거쳐 손진규에 의해 『석곡산고』로 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집을 중심으로 이규준의 여행이 지닌 의미와 여행기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 이규준, 여행기록, 『석곡산고』, 사실적 기록, 개항기

## 1. 서론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유산(遊山)을 하면서 산천의 풍광을 즐겼을 뿐 아니라 신체를 훈련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이때 유산은 여행의 주요한 명분이었고, 여행에서 돌아온 이들은 자신의 견문과 감상을 기록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다양한 여행기록이 전하고 있는데,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이곡의 「동유기」 등은 조선 이전의 대표적 인 여행기록이다. 이들 기록은 일기 형식으로 여행에서의 행적을 기록하였지만, 매일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적을 중심으로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 태도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5세기 유학자의 여행에 대한 전말(顛末)을 알려주는 기록으로 어숙권의 『패관잡기』<sup>1)</sup>가 있다. 이 기록에서 어숙권은 “옛사람이 글로써 일을 서술(敘述)한 것”을 기(記)라고 정의하고, 15세기에 “문장의 한 체(體)”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여행에서의 행적과 목도(目睹)한 경물을 서술하는 문체”를 유기(또는 유산기)라고 하였다.<sup>2)</sup>

1) 어숙권, 「패관잡기」 2,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71, 484쪽. “옛사람이 글로써 일을 서술(敘述)한 것을 기(記)라 하는데 (중략) 우리나라에는 점필재(佔畢齋)의 두류기행록이 있으며 (중략) 철성(鐵城) 이주(李冑)의 금골산록(金骨山錄)이 있어, 드디어 문장의 한 체(體)가 되었다.”

성리학에 기반한 문화와 문명이 유지되던 조선에 개항 이후 서구의 신문물이 들어왔다. 이후 조선 각지에서 문화적, 문명적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한 갈등도 표출되었다. 이러한 개항기<sup>3)</sup>에도 유학자들은 여행을 하고, 유기(遊記)를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여행문화와 유기 문학의 전통은 19세기 말 개항기의 유학자 이규준[李圭駿, 1855-1923]에게 계승되었다. 그는 유산(遊山)과 선유(先儒) 방문을 목적으로 전국을 유람하였다. 선유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그를 만나기 위해 움직였고, 그 여행에 대한 전말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석곡산고」에 전하는 한시와 산문은 대부분 이러한 여행과 관련이 있다.

개항기의 시대상은 여행을 통해 잘 드러날 것이지만, 당시의 여행기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개항기의 여행기록에 대한 연구성과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정수는 20세기 초에 기록된 기행가사를 대상으로 여행의 성격이 근대적 관광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그 특성으로 신문물 체험 욕구와 경성 유람의 성행을 제시하였다.<sup>4)</sup> 정영문은 1932년 보성의 향촌 유학자 임기현 일행의 유기를 살펴 유람에서 관광으로의 변화와 문명과 문화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였다.<sup>5)</sup> 박종훈은 20세기 초에 기록된 유기를 대상으

2) “등산한 체험을 기록하는 형식”(조규익, 「유산가사와 체험의 확장」, 『고전시가의 변이와 지속』, 학고방, 2002, 302쪽), “유산(遊山)의 풍속을 살피고 유산의 체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기록”(이종묵,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389쪽), “산천을 유람하면서 견문하고 체험한 사실을 기록하는 양식의 글”(김철조, 「금강산을 노래한 시와 산문」, 유흥준 엮음, 『금강산』, 학고재, 1998, 293쪽) 등이 있다.

3) 1876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조선은 개항을 하였고, 그 이후 1910년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개항기’라고 하였다.

4) 장정수, 「20세기 기행가사의 창작배경과 작품세계」, 『어문논집』 47, 민족어문학회, 2003, 415~447쪽.

5) 정영문, 「임기현의 『금강산유상일기』에 대한 연구」, 『리터러시연구』 14(4), 리터러시학회, 2023, 593~618쪽.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898년 정인채는 <해산지>에 금강산 유람담을 110개의 풍경점을 중심으로 기록하여 유기의 편폭을 확대<sup>6)</sup>하였으며, 1924년 김한익은 김창협이 <동유기>를 지참하며 금강산을 유람하였고, 그때의 체험을 기록한 <금강유록>에는 일제 치하의 현실과 망국의 한을 담아내었다<sup>7)</sup>고 보았다. 김다래·박희정·미야키 케이나는 혼마 규스케의 『조선여행기』에 멸시의 시선, 문명국 일본의 시선과 조선을 향한 일본의 제국의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sup>8)</sup>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석곡 이규준은 천문, 심성론(철학), 예악, 한의학 등 여러 분야의 저서를 남겼다. 「석곡산고」에는 한시, 서(書), 유기 등 문학, 「석곡심서」에는 심성론, 기일원론 등 철학, 「포상기문」에는 서양의 문물과 역사, 「의감중마」와 「본초」에는 의학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규준에 관한 연구는 한의학론에 집중<sup>9)</sup>되었다. 이는 한의학 분야에서 그의 이론과 저서인 「의감중마」, 「소문대요」, 「본초」 등의 가치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준의

- 
- 6) 박종훈, 「지암 정인채의 금강산 유기 일고」, 『온지논총』 76, 온지학회, 2023, 87~114쪽.  
 7) 박종훈, 「일제 강점기 화동 김한익의 금강산 유람」, 『국제언어문학』 51, 국제언어문학회, 2022, 115~143쪽.  
 8) 김다래·박희정·미야키 케이나, 「개항기 일본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인식」, 『역사와 경계』 93, 부산경남사학회, 2014, 65~99쪽.  
 9)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론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전학회지』 12(2),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9, 15~53쪽; 권오민·박상영·안상영·한창현·안상우, 「이규준의 생애와 사상적 경향」, 『한국의사학회지』 22(1), 한국의사학회, 2009a, 7~13쪽; 권오민·박상영·안상영·한창현·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석곡산고」번역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2(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b, 161~185쪽; 권오민·박상영·안상영·한창현·안상우, 「석곡 이규준의 「석곡산고」번역 연구Ⅱ」,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2(4),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9c, 153~166쪽; 성호준, 「조선후기 석곡 이규준의 율학과 의학」, 『동양철학연구』 60, 동양철학연구회, 2009, 109~132쪽; 권오민, 「석곡 이규준의 인간관과 의학론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2010, 1~118쪽 등이 발표되었다.

생애와 사상적 경향을 보여주는 『석곡산고』 해제, 그의 시문을 매개로 하는 치유와 관련된 연구<sup>10)</sup>, 시문을 중심으로 석곡의 삶과 학문적 지향점을 살펴본 연구<sup>11)</sup> 등이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석곡산고』 소재의 시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그의 유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여행과 유기<sup>12)</sup>에 나타나는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규준의 생애와 사회상 인식

석곡 이규준(1855-1923)의 자(字)는 숙현이고, 호는 석곡(石谷), 본관은 경주이다. 그는 익재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후손으로 1855(철종 6)년 11월 10일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임곡리에서 태어나 1923년 10월 11일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성리학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나 그의 철학은 영남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보다는 기(氣)철학과 양명학(陽明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형성된 기일원론(氣一元論), 심성정동일론(心性情同一論)을 바탕으로 부양의학을 제창<sup>13)</sup>하였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는 구한말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였다. 이 시대

10) 박연자, 「석곡 이규준의 시문과 일원이기론에 천착한 심성론을 통해서 본 인문학적치유론」,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73쪽.

11) 신상구, 「石谷 李圭峻의 詩文을 통해서 본 학문과 현실인식」, 『한민족문화연구』 51, 한민족문화학회, 2015, 47~74쪽.

12) 이규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29』,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석곡산고」는 손진규가 1981년에 문집으로 간행하였고, 2009년에 권오민 등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 29로 국역하였다. 문집에는 이규준의 여행 체험과 견문을 기록한 한시와 유기(〈入伽倻山記〉, 〈西遊路程記〉, 〈京都志〉, 〈金剛日記〉, 〈湖遊日記〉, 〈湖上再遊日記〉) 등이 수록되었다.

13) 권오민 외(2009b), 앞의 논문, 162쪽.

에 대하여 이규준은 “세상 어디나 오랑캐 세상”<sup>14)</sup>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새로운 문화와 문물의 이입으로 “둔탁하게 질그릇 두드리는 소리만이 요란”<sup>15)</sup>해진 시대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그는 유학으로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고, 그 방법으로 선유(先儒)를 만나 시국과 유학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혼란상에 대해서는 지식인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후산(厚山)은 현재 “중국은 복이 없어 오랑캐를 불러들이”<sup>16)</sup>고 있는 상황이지만, “옛 책 들고 고향으로 가는데 /강산은 여기나 저기나 같지만 내마음 흡족하네”<sup>17)</sup>라고 하여 개인의 심회를 중시하였다. 반면에 이규준은 후산의 시에 창수(唱酬)하면서 “흉년들어 촌락엔 야윈 아낙 많고 /세상 혼란해 산하대지엔 의리있는 사내 적네 /세상은 현재 누구나 먹을 것 없으니 /나그네 음식 맵고 단 것을 어찌 따지겠는가”<sup>18)</sup>라고 하였다. 개인의 심회보다 시대의 변화에 주목하고, 혼란한 사회와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낸 것이다.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러한 감정도 드러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그가 1911년 적상산성에 올라갔을 때, 안국사의 늙은 승려와의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sup>19)</sup> 이규준은 승려와 대화

14)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규준, 「국역 석곡산고·석곡심서·포상기문」, 『전통의학 고전국역총서29』,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의 번역을 바탕으로 하였다. 『석곡산고』 46쪽. 〈入孔岩洞 次居然亭韻〉 “洋海腥塵”.

15) 「포상기문」 〈浦上奇聞序〉 “有人於舉世混混雷鳴瓦釜之秋”

16) 『석곡산고』 46쪽. 〈附厚山詩〉 “中華少祿招禽類”

17) 『석곡산고』 46쪽. 〈附厚山詩〉 “携取陳編歸舊里 一般山水此心甘”

18) 『석곡산고』 45쪽. 〈同厚山南遊 滯雨月城〉 “年飢村落多羸婦 世亂山河少義男 宇內于今皆失哺 何論旅食閔辛甘”.

19) 『석곡산고』 112쪽, 〈湖遊日記〉. 안국사의 늙은 승려와 대화하는 과정에 이규준이 “적상산성에서 있었던 옛날 일을 물으니 사관이 의식을 치렀던 내용으로 대충 답하였다. 서로 마주 보며 멍하니 있다가 여러 번 탄식하고 일어났다.” 이러한 행동은 ‘나라 잃은 슬픔’이 표출된 것이다.

를 하면서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감회에 젖어들어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심정을 밝히며 망국의 슬픔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애정이 이규준과 여러 항일인사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개항 이후 조선에 새로운 문물이 도입되면서, 개항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변화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는 서울이었고, 짧은 일정으로 살펴본 서울의 풍경이지만 그는 “기묘한 기계와 괴이한 물건들, 세상 저 건너편에서 온 많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sup>20)</sup>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선진 문물에 대한 인식은 다음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① 鐵絲來去分毫間 오가는 철사줄 가늘디 가는데  
 千里音書片刻還 천리길 먼 소식을 순식간에 전하지  
 機巧驅民溪壑裏 교묘한 기계가 백성을 구렁텅이로 내몰지만  
 康衢路上也非關 길은 넓고 커서 상관하지 않지<sup>21)</sup>
- ② 璃宮迢遞起禽栖 아득한 유리궁, 새 집처럼 우뚝하고  
 鐵路縱橫錯獸蹄 종횡무진 철로, 짐승 발자국처럼 뒤섞이네  
 泮水橋頭夫子廟 반수교 초입, 공자사당  
 蕩平碑下草萋萋 탕평비 아래, 풀은 우거졌네<sup>22)</sup>

이규준은 1901년(신축년) 3월 27일 대구 남산동을 떠나 진천으로 여행하다가 달서교에서 전선(電線)을 보았다. 그 전선은 전기로 멀리까지 소식을 전하는 전신(電信)이었다. 그는 이러한 서구 문물이 ‘機巧 교묘한 기계’이지만, 이로 인해 더욱 궁핍해지는 조선 백성의 실태를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드러낸다. 전선과 넓은 도로가 여행 노정에 있으니, 시대

20) 『석곡산고』 94쪽. 〈京都志〉 “奇機怪玩 絶海百産 山積阜儲”.

21) 『석곡산고』 39쪽. 〈電線〉

22) 『석곡산고』 48쪽. 〈遊京有感〉

의 변화를 인식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①에 담은 것이다.

1884년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와 전등 설비 계약을 맺은 고종은 1887년 1월 화력발전식 전기발전소인 ‘전기등소(電氣燈所)’를 향원지와 영훈당 사이에 세우도록 하였다. 이 발전소는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조선인의 일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폐쇄되었다. 이와 달리 전신은 1885년 10월 3일에 서울과 인천, 11월에 서울과 의주, 1886년 2월에는 서울과 부산 사이에 개통<sup>23)</sup>되어 먼 지역의 소식을 빨리 알려주었다. 이규준은 1901년 대구에서 전선을 발견하고, 그 문물로 인해 윤택해져야 할 백성들의 삶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②는 1911년 이규준이 서울을 유람하면서 지은 철언절구의 첫 수이다. 그는 신문물로 상징되는 철도와 조선으로 상징되는 공자묘와 탕평비의 몰락을 제시하여 조선을 지탱하던 사상이 몰락하는 당대의 현실을 고발하였다. 경인선(1899), 경부선(1905), 경의선(1906) 철도가 완성되면서 일상에서 이동이 편리해졌다. 이러한 철도의 유용성으로 인해 경부선이 개설된 이후 철도를 소재로 하는 가사 작품들이 창작<sup>24)</sup>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유길준 같은 이들은 증기기관의 힘으로 움직이는 기차를 “편리하고도 부강한 상황을 조성”<sup>25)</sup>하는 기술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서구 문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이규준은 신문물의 도입 이후 점차 잊혀져 끝내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공자 사당과 탕평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개항 이후 서구의 문물은 도입되었으나 조선의 정신과 사상은

23) 박성래, 『역사속 과학인물 - 최초의 한글 전신부호 고안 김학우(1862-1894년)』, 『과학과 기술』 3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9, 33쪽.

24) 김아연, <대한매일신보> 철도가사와 철도의 표상 - 식민지 근대의 표상으로서 철도에 대한 매혹과 부정의 관점에서, 『인문과학』 55집, 2014, 133쪽. <대한매일신보>에 철도가사가 1905년 1편, 1907년 2편, 1908년 10편, 1909년 2편, 1910년 2편 소개되었다.

25) 유길준, 허경진 역,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491쪽.

위태롭게 되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이규준은 신문물의 도입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정을 보여주는 구절이 “예로부터 문인은 곤잘 시대를 아파해 온갖 생각 가슴에 맏혀 글쓰기 더디지”<sup>26)</sup>이다.

개항 이후 신문물과 전통사상이 뒤섞인 조선에서 살아가던 그는 유학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의 심정은 다음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금은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침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식 교육이 크게 신장되어 개명의 풍조가 날로 팽창하고 유신의 노래가 한창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분주한 무리들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에 나아가고, (중략) 젊은 후배들은 모두 본성을 바꾸고 윤리를 버리며 전통 복장을 버리고 옛 서적을 훼손하면서 오직 서양인을 스승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영남의 여러 군자들께서 중용의 도리로 보좌하여 옛 가르침을 만회하고 윤리와 도덕을 유지한다면 (중략) 그 공적이 어찌 위대하지 않겠습니까”<sup>27)</sup>

당시 유학자들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탈피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고,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개항되면서 서구의 문물과 지식 등은 빠른 속도로 도입되어 문화 접변<sup>28)</sup>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옛 것을 버리고 새

26) 『석곡산고』 12쪽 〈郭氏庄上〉 “從來騷客善傷時 萬緒紆中下筆遲”

27) 『석곡산고』 59쪽 〈與嶠南教育會員朴晶東李根中等〉 “當今西勢東侵 新教大張 開明之風潮日漲 維新之謠鼓方颺 奔競之徒 去舊就新 (중략) 年少新進 率皆換性命 去倫禮 棄冠裳毀墳籍 惟西人是師 于斯時也 惟我嶠南僉賢君子 能從中調護 挽回舊教 維持倫常 (중략) 其功豈不偉乎哉”

28) 문화전파에 의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장기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문화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문화 접변이라고 한다. 개항기 이후 조선에서는 필요성에 의해 서구 문화를 수용하는 자발적인 문화 접변보다 외부의 강제적인 힘이 작용하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것에 나가고”, ‘윤리와 전통’을 버리고 ‘서양인을 스승’으로 삼는 시대가 되었지만, 유학으로 윤리와 도덕을 유지한다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1899년(기해) 4월 석동서당(石洞書堂)을 짓고, 그해 가을에 낙성식을 하였다. 서당을 중심으로 석재 서병오(徐丙五, 1862-1935) 등의 인재를 양성하면서 틈을 내어 선유를 방문하고 서울, 속리산, 가야산, 금강산 등지를 여행하였다. 그 여행에서의 견문과 감흥은 기(記), 지(志), 일기(日記), 한시(漢詩) 등의 형식으로 기록<sup>29)</sup>하였다.

### 3. 『석곡산고』 소재 유기(遊記)의 서술적 특징과 의미

조선의 유학자들은 유산(遊山)에 대한 의지가 강하였고, 유산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행지에 축적된 문화유산을 감상할 뿐 아니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심신을 수련하는 공부<sup>30)</sup>로 삼았다. 유산 후에는 자신의 견문과 감상을 기록하고자 했다. 그 기록 중 일부는 ‘와유록(臥遊錄)’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인의 유산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유학자의 유산하는 자세는 이규준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의 유산에 대한 인식은 다음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석곡산고』 발간사에서 손진규는 이규준의 제자 최종락이 스승의 글을 필사하여 보관하다가 1968년(무신년) 봄 손진규에게 보여주었고, 자신이 이 자료를 필사하여 1981년에 문집으로 간행하였다고 밝혔다. 1981년에 편찬된 『석곡산고』에는 석곡서당기, 漢詩 105제 110수, 書 5편, 祭文 10편, 記 6편이 유형별로 기록되었고, 부록에도 祭文, 墓碣銘, 輓詩 등을 수록하였다. 한시는 생일시, 만사 등 주제에 따라 배열하였는데, 原詩나 次韻詩 등 관련 한시도 부기(附記)하고 있다. 1966년 이전에도 상하 2책으로 구성된 『석곡산고』가 있었다(『석곡산고』 해제 136쪽)고 하지만, 현재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30) 원두희, 「일제강점기 근대 관광지로서의 금강산」, 『기전문화연구』 38(2), 2017, 123쪽.

桃源近日暫遊歸 요사이 잠시 좋은 경치 구경하느라  
 短褐飄然歷翠微 소탈한 복장으로 나는 듯이 푸른 산 돌아다녔네  
 (중략)  
 好友逢時懷緒吐 좋은 벗 만나 감정을 토로하고  
 新詩得處世情違 아름다운 곳에서 시 지으나 세태와는 어긋나네  
 同塵缺界心猶洗 화공동진 엉망인 세상 그래도 마음은 닦아야 하니<sup>31)</sup>

그가 살아가는 세상은 개항 이후의 혼란기였지만, 유산을 매개로 벗과 마음을 나누고 시를 짓고,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규준이 ‘桃源’을 찾아 유산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조선의 유학자가 기록한 유기(遊記)에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첫째, 유산하는 지역의 경관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하는 전설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평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산하는 장소에서 선인(先人)의 제명을 찾아보고 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학자에게 있어서 제명(題名)은 선인의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그들의 문명성을 확인하고, 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규준의 유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특징이다.

그는 입산기(入山記), 노정기(路程記), 일기(日記)와 한시로 자신의 여정을 기록하였는데, 주된 형식은 일기체이다. 이때의 일기는 날짜별로 매일 매일의 일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할만한 사적이 있거나 중요한 행적을 위주로 기록한 것이다. 특별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와 이동 거리 등도 기록하였다. 여행지에서 느끼는 감흥은 한시로 표현하였는데, 문집으로 구성되면서 여행과 관련된 한시가 기(記)와 지(志)에서 독립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여행을 하면서 주목했던 부분은 다음의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다.

31) 『석곡산고』 49쪽. <還至達城 吟於崔清道庄上>

- ① 보은군 북쪽 30리에 속리산이 있는데, 세상에서 작은 금강산이라 불러 마침내 가서 보았다. 산 하나의 주위 사면이 모두 흙은 없고 돌이 겹겹이 우뚝 솟아있어 나도 모르게 돌아보며 탄식하고 깜짝 놀랐다. 가운데 감문 이 하나 있고, 문밖에 비석이 있으니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짓고 동춘당 송준길 선생이 쓰신 것이다. 그 글에 “상봉에 돌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 머리가 서쪽을 향하고 있고, 등에는 10층 부도가 있다. 세속에서는 옛날에 중국인이 와서 보고 ‘중국의 재물이 날마다 동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 거북이 있기 때문이다.’하고는 거북의 머리를 잘랐다고 한다. 나는 중국의 재물이 언제 날마다 우리나라로 옮겨왔는지, 또 지금이 옛날만 못한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것은 잘못된 점을 확실하게 논파한 것이니, 안마 이런 전설은 승려 가운데 괴이한 것을 좋아하는 자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sup>32)</sup>
- ② 내가 금강산이 천하의 명산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유람하는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기록의 내용은 모두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대부분 들은 얘기를 쓴 것이니, 유람하는 사람들은 더욱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sup>33)</sup>

①은 속리산에 전하는 전설과 비평을 기록한 것이고, ②는 <금강일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밝힌 글이다. 속리산은 간재 전우[田愚, 1841-1922]를 만나기 위해 떠난 1901년 여행에서 잠시 유람했던 장소이다. 그는 소금강

32) 『석곡산고』 89~90쪽. “(報恩)郡北三十里有俗離山 世稱小金剛 遂往見之 有一山 周遭四面 皆石無土 重重矗矗 不覺顧眄而歎愕矣 中有一紺門 門外有碑 乃尤庵 宋先生之所撰 同春宋先生之所書也 其文有曰 上峰有石龜 龜頭向西 背上有十層浮圖 諺傳昔有中朝人來見曰 中原財帛 日輸於東國者 有此故也 因斷其頭 余未知中原財帛 何時日輸於東國 而今時不如昔者乎否也 此正辨訛之確論也 蓋其說備於浮屠之好怪也”(밑줄은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 아래의 인용문에 그은 밑줄도 그러함을 밝힌다.)

33) 『석곡산고』 101쪽. <金剛日記> “余聞金剛 天下之山 故今往試觀 多所相謬 故爲之記 使聞者不惑 然是記也 非盡目擊 多述耳 獵覽者更詳之”.

으로 불리는 속리산이 돌산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은 우암 송시열이 작성했다는 비문의 내용이다. 비문에는 서쪽을 향하고 있는 머리 잘린 돌거북의 전설과 송시열의 평이 기록되어 있다. 이규준은 속리산의 경관보다 송시열이 지었다는 비문의 내용이 기록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판단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는 속리산 인근에 전하는 전설을 인용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전설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잘못도 “승려 가운데 괴이한 것을 좋아하는 자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怪’는 ‘詭’<sup>34)</sup>의 의미로 ②의 〈금강일기〉를 기록하게 된 이유와 통한다.

②에서 이규준은 유기를 기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유람하는 장소에 전하는 이야기 중에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사실로 믿고 현혹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금강산으로의 여행이 일상화된 것은 1920·30년대<sup>35)</sup>이다. 그 이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강산 여행은 일부 사람에게 한정된 일이었고, 사람들 대부분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기록을 읽거나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이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았는데, 이규준은 〈금강일기〉를 기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밝히면서도 “기록의 내용은 모두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대부분 들은 얘기를 쓴 것이니, 유람하는 사람들은 더욱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여행지와 관련되는 이야기 중에서 ‘현혹’되지 않는 이야기만을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고,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합리성’ 있는 이야기는 기록하

34) 『석곡산고』 40쪽. 〈俗離山〉

35) 1920·30년대에는 경원선을 이용하여 철원까지 가서 전차로 내금강역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강산은 주말 여행지로 주목을 받았고, 장안사와 온정리 일대는 편의 시설을 갖춘 관광도시로 성장하였다.

여 후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을 밝힌 것이다. 그의 여행기는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허황되지 않은 정보’만을 선별하여 기록하려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이규준의 유기가 지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4. 이규준의 여행 목적과 의미

이규준의 여행은 한시와 산문인 〈서유노정기(西遊路程記)〉(1901), 〈경도지(京都志)〉(1901), 〈금강일기(金剛日記)〉(1902), 〈입가야산기(入伽倻山記)〉(1909), 〈호유일기(湖遊日記)〉(1911), 〈호상재유일기(湖上再遊日記)〉(1913) 등에 기록되었다. 이들 기록은 그의 나이 46세(1901)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의 여행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개항기 이후 신문물이 도입되면서 변화 속도가 빨라졌으나 사회를 지탱하던 기존 이념은 붕괴하였고, 이로 인해 혼란이 극심해졌다. 이러한 시기에 이규준은 산수 유람과 선유(先儒)와의 만남을 목적으로 가야산(伽倻山), 속리산(俗離山), 계룡산(鷄龍山), 적상산(赤裳山), 금강산(金剛山) 등지를 여행하고 그 여정을 기록하였다.

##### 1) 유산(遊山)의 체험과 감흥(感興)의 기록

이규준의 여행 목적은 시기마다 달랐지만, 송병순이 말한 “자네의 이번 행차는 유람이 목적”<sup>36)</sup>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에게 산수 유람도 목적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수 유람의 모습은 〈서유노정기〉, 〈금강일기〉, 〈호유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유노정기〉는 1901년 3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57일 동안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한 여정<sup>37)</sup>을 기록한

36) 『석곡산고』 111쪽 〈湖遊日記〉.

37) 〈西遊路程記〉에 기록된 여행 노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발, 대구 남산동, 달서

노정기이다. 이 여행에서 그는 서울까지 유람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경도지>에 기록하였다. <금강일기>는 이수(李脩), 정선조(鄭先祚)와 함께 1902년 4월 7일부터 5월 23일 귀가할 때까지 관동 지역과 금강산을 여행한 일을 기록<sup>38)</sup>한 일기이고, <호유일기>는 임봉식, 황보준, 최상석과 함께 1911년 4월 28일 출발하여 6월 13일 귀가할 때까지의 충청도 여행을 기록<sup>39)</sup>한 일기이다.

이규준은 1901년 3월 14일 출발하여 상주를 지나 화령(華嶺)에 올랐다. 속리산 동쪽에 위치한 이 산은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다. 그는 산을 넘어가던 상황과 당시의 심정, 자연 풍광 등을 칠언율시로 읊었다.

穿巖終日信筇行 온종일 바윗길 뚫으며 지팡이 믿고 가니  
一曲幽溪一曲明 한 굽이는 어두운 계곡이고 한 굽이는 밝은 곳이니  
二省中分喬嶽出 두 개의 도 나뉘는 곳, 높은 산 솟아있고

교, 칠곡, 인동, 낙동강, 상주, 화령, 보은, 회인, 청주, 작천진, 진천 문천동, 백현, 안성, 양성, 수원, 지지대, 과천, 동작진, 서울 남문, 수원, 진위, 우설원, 직산, 천안 금곡리, 전의, 보은(속리산), 순천, 장암, 문경, 조령, 봉황성, 성주 상곡, 대구 정대동, 팔공산, 영천 천곡, 귀가”로 이어진다.

38) <金剛日記>에 기록된 여행 노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발, 寧海, 平海, 月松亭, 望洋亭 옛터, 三陟, 召公嶺, 竹串島, 竹西樓, 柄山村 半亭里, 江陵府, 梧竹軒(烏竹軒의 誤記), 鏡浦臺, 襄陽, 洛山寺, 杆城, 清澗亭, 崖岩浦, 鳴砂浦, 百川津, 高城郡, 三日浦, 溫井洞, 叢石亭, 溫井, 神溪寺, 九龍淵, 金剛門, 阿彌陀峰, 萬物草, 神溪寺, 停庫, 百川橋, 犬嶺, 楡岾寺, 四水嶺, 衆香城, 萬灰庵, 摩訶庵, 白雲臺, 萬瀑洞, 火龍潭, 龜潭, 船潭, 琵琶潭, 眞珠潭, 噴雪潭, 黑龍潭, 映花潭, 普德窟, 表訓寺, 正陽寺, 歌慳樓, 表訓寺, 長安寺, 楡岾寺, 國師峰, 龍山洞, 長承洞, 洪川, 橫城, 原州, 堤川, 萬壑江, 丹陽, 竹嶺, 豐基, 榮州, 河回洞, 法興村, 水谷 大坪, 眞寶邑, 歸家”로 이어진다.

39) <湖遊日記>에 기록된 여행 노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발, 대구, 대전, 가수원, 진잠, 성북현, 홀령에서 본 계룡산, 동문향, 유점계에서 본 계룡산, 계룡산 동쪽 골짜기 하룡추, 중봉에서 본 계룡산, 자룡추, 용천향, 서문향, 신원사, 영천봉, 승운암, 갑사, 동악사, 경천사, 연산군, 계태령, 두가시, 중봉, 회덕, 산정령, 옥천 삼가리, 옥천읍, 이원역, 양산사, 황석점, 율림령, 상곡면 북장리, 적상산, 활산동, 영동, 대구, 팔공산, 영천, 귀가”로 이어진다.

百泉下注大江橫 온갖 샘물 아래로 흘러 큰 강이 비껴 있네  
 田容半入叢林蔭 전원풍경, 대추나무 숲 그늘에 만나마 들어가고  
 人語難聞水堆聲 사람의 말소리, 겹겹 물소리에 들리지 않네  
 西嶂有如仙掌在 서쪽 산에 만일 선장(仙掌)이 있다면  
 招招慰我遠遊情 멀리 유람하는 나를 불러, 마음 달래주어라<sup>40)</sup>

이규준은 지팡이만 의지하여 바위산을 올라가는 과정, 고개 위에서 바라 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나이 46세에 진천 문천동에 머물고 있다는 전우(田愚)를 만나기 위해 천 리를 가던 도중에 잠시큰 강과 대추나무숲이 있는 화령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곳에서 자연에 몰입하여 인간의 언어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그는 1899년 석동서당(石洞書堂)을 짓고 안정을 찾은 이후, 선유를 방문하며 그들과 대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규준은 정통 성리학과는 다른 철학적 입장(理氣之合의 氣一元論<sup>41)</sup>)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는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런 까닭에 그들과의 대화는 도리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요인이 되었지만, 그는 멀리 있는 선유를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화령의 자연에 매료되어 잠시 위안을 얻고자 한 것이다.

1902년 이규준은 유람을 목적으로 관동 지역을 여행하였다. 이 여행에서 노정을 관동에서 금강산으로 확대한 것은 “금강산이 천하의 명산”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sup>42)</sup> 서울에서 출발한 금강산 유람객은 대부분 “내산을 따라 외산으로, 산에서부터 바다로 유람”<sup>43)</sup>하는 노정을 이용하였고,

40) 『석곡산고』 39쪽. 〈過華嶺〉

41) 『석곡산고』 해제, 151쪽.

42) 『석곡산고』 101쪽. 〈金剛日記〉.

43) 송환기, 「동유일기」, 경성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금강산유람록』, 민속원, 2019, 72~73쪽.

이러한 노정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규준은 1902년 4월 7일 본가(대구)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곡강, 망양대, 소공령, 죽서루, 반정, 경포대를 거쳐 해금강, 외금강, 내금강의 노선을 이용하였다. 관동에서 금강산으로 향하는 노정에서 지은 시<sup>44)</sup>와 내외(內外) 금강산에 대한 개괄을 정리한 것이 〈금강일기〉이다.

崇山踏盡得華樓	높은 산 답과하고 화려한 누각 만났는데
叢竹盤松度幾秋	우거진 대숲 거대한 소나무, 몇 해를 지나왔나
畫裡晴嵐衿上滴	그림 속의 맑은 이내 옷깃에 방울지고
鏡中淵匯脚心流	거울 속의 깊은 연못 발바닥에 흐르네
百篇刻字留仙跡	많은 글 새겨 놓아 신선 자취 남기고
四面嘯颺散客愁	사방의 세찬 바람 나그네 시름 날려버리네
此去蓬萊知遠近	여기서 봉래산이 얼마나 되나
凭欄一笑問沙鷗	난간에서 웃으며 모랫가 갈매기에게 묻네 <sup>45)</sup>

위의 시는 이규준이 관동팔경의 하나인 죽서루에 올라 율곡 선생의 시를 차운해서 지은 것이다. 관동 지역에는 ‘崇山’, ‘華樓’, ‘叢竹’, ‘盤松’ 등 자연물이 많고, ‘刻字’한 제명(題名)도 많으니 그는 이들을 구경하면서 봉래산을 찾아가고 있다. 신선들이 산다는 봉래산으로 향하는 길을 ‘沙鷗’에게 묻고 있으니, 그의 유산은 자연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물이 그의 ‘客愁’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하였다. 금강산에 올라간 그는 “일 많은 세속 인간, 유독 특이한 걸 좋아해 /바위에 새긴 이름, 별처럼 어지럽네”<sup>46)</sup>라고 하였다. 그도 금강산 바위에 새겨진 무수한 이름을 확인

44) 그는 금강산으로 가는 노정에 지은 시 중에서 현재 〈曲江賦餞〉, 〈登望洋臺古墟〉, 〈過召公嶺〉, 〈登竹西樓 敬次栗谷先生板上韻〉, 〈留半亭〉, 〈登鏡浦臺〉, 〈金剛山〉, 〈登國師峰〉, 〈出宿長承洞安氏庄〉 등이 전한다.

45) 『석곡산고』 42쪽. 〈登竹西樓 敬次栗谷先生板上韻〉

했으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명이 있는 장소가 유학의 문명성이나 선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장소로 인식하지 않고, 제명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일을 ‘偏好異 유독 특이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벽(癖)<sup>47)</sup>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대부들과 20세기 초의 금강산 관광객들은 금강산에 이르러 자연풍광과 그곳에 얽힌 고적과 설화를 함께 즐기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그들이 금강산에서 획득한 장소성<sup>48)</sup>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이규준은 금강산에서 “승려들이 과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여 불교의 호칭으로 여러 봉우리를 명명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현혹한 것이다. 이른바 과장에서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산을 두고 한 말일 것”<sup>49)</sup>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설화는 현혹의 대상이며, 과장된 것으로 기록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리산, 속리산, 계룡산, 금강산 등 그가 유산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 2) 선유(先儒)의 방문과 구사(求師)의 여정

이규준의 여행은 자연의 경물을 완상하는 유람의 성격만 지닌 것이 아니라 선유(先儒)를 방문하여 그에게 성리학적 진리를 구하는 성격도 있었다.

46) 『석곡산고』 44쪽. 〈金剛山〉 “多事世人偏好異 題名石上亂如星”.

47) 서지원, 「조선조 문인들의 벽 연구」, 『온지논총』 75, 온지학회, 2013, 63쪽. “벽은 ‘하나의 습관이 굳어져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로 ‘병적으로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그 무엇’이다.”.

48) 에드워드 펠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93~94쪽. ‘장소’는 정치적·문화적·사회적 가치가 부여되어 일정한 인문학적 의미가 창출되는 공간으로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하는 ‘공간’과는 구별된다. ‘장소’는 경험하는 주체와 상호 작용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의 인식작용, 정사와 상호작용하여 정체성을 드러낸다.

49) 『석곡산고』 101쪽. 〈金剛日記〉 “繼徒好誇大其言 名諸峰以佛號 以誑惑愚氓 所謂大其言 其此山之謂歟”.

이러한 여행의 성격은 <귀로음(歸路吟)>에서 확인할 수 있다.

閱盡三春不在家	석달 봄 다가는 동안 집에 있지 않았으니
此行非是賞繁華	이번 행차 목적은 변화한 경치 구경 아니지
十年志道功猶拙	십년 동안 도를 지향하나 공부는 졸렬하고
千里求師計又差	천리 멀리 스승 구하나 계획은 어긋났지
幽壑誰知藏霧豹	어둠한 골짜기에 무표가 숨어 있는지 누가 알겠는가
高臺先發向陽華	높은 누각에 태양 향한 꽃이 먼저 피는구나
且須歸坐竹廳下	우선 돌아가 대나무 창 아래 앉아
潛溯古人尋五車	가만히 선현 추구하여 많은 책을 읽어야 하리 <sup>50)</sup>

위에 인용한 <귀로음>은 1902년 금강산을 여행하고 돌아오던 노정에서 지은 시이다. 이규준은 평생 많은 여행을 하였고, 그 여행은 목적에 따라 ‘賞繁華 변화한 경치 구경’와 ‘千里求師 천리 멀리 스승 구하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시에서 자신의 오랜 공부가 “猶拙”하고, 선유(先儒)를 만나 유학적 가르침을 구하고자 했던 ‘千里求師’도 “計又差 계획이 어긋났”다고 하였다. 공부와 여행의 헛됨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는 당시 조선의 위태로운 상황과 유학자들의 반목이 그 원인<sup>51)</sup>이라고 하였다. 당시 이규준은 전통적인 성리학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반면에 선유는 시대가 급변함에도 보수적이었고, 예교(禮敎)<sup>52)</sup>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1902년 이후에도 이규준은 선대 유학자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였다. 선유를 방문하는 여정은 <서유노정기>, <입가야산기>, <호상재유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석곡산고』 40쪽. <歸路吟>

51) 『석곡산고』 48쪽. <遊京有感> “東夏如今西教蔓 조선은 현재 서양 세력 만연하니士林到此肯相猜 유학자들 지금 시대에도 서로 미워하려는가”

52) 이준규, 「석곡 이규준의 한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8(2), 한국한의학연구원, 2012, 18쪽.

1901년 3월에서 5월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서유노정기〉에는 이규준이 서울과 속리산을 방문한 여정이 기록되었다. 이 여정은 간재(良齋) 전우(田愚)를 만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여행이었다. 목적을 지닌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규준이 진천에 사는 전우의 둘째 아들 집으로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자 천안으로 가서 만난다. 〈서유노정기〉은 간재를 만나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로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노정에 유산(遊山)의 감흥이 기록되기도 했으나, 그 여행의 중심에는 선유의 만남과 이별, 대화가 있다. 그들의 대화에서 간재는 육예(六藝) 부분에서 “음악 이하는 송나라 이후로 설명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답변을 회피하지만, 이규준은 “제가 선생께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재덕을 갖춘 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감히 찾아뵈는 것”<sup>53)</sup>이라고 대화를 지속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전우는 그에게 “이것은 비루한 사람이 언급할 바가 아니”라거나 “선생이라니 누가 선생이란 말이오, 다시는 그렇게 칭하지 마시오”<sup>54)</sup>라는 핀잔을 하기에 이른다. 후일 전우는 이규준에 대하여 “나도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다. 타고난 재질이 박한 데에다 평소에 바른 지식을 쌓지도 못하였으니, 黑暗의 진창에 빠져 바른 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sup>55)</sup>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규준은 1909년(기유년) 5월 초 가야산을 유람하다가 면우 곽종석[郭鍾錫, 1846-1919]을 만나고 상순(上旬) 경에 귀가하였다. 이때의 기록이 〈입가야산기〉이다.

53) 『석곡산고』 89쪽, 〈西遊路程記〉 “吾聞先生 曠世之才 故敢來見”

54) 『석곡산고』 89쪽, 〈西遊路程記〉, “先生 謂誰 請勿復稱”.

55) 강지은, 「20세기 초 한국 儒者의 時代認識 : 石谷 李圭峻의 ‘正心’ 해석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문화 7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284쪽. “愚亦知其人矣. 薄有才性, 而素無正識, 其入於黑暗之 塗而不知歸, 無足怪也 : 田愚, 良齋集, 後編 卷6, 答成職運”

숙현이 가야산을 유람한 뒤에 가야산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험준한 봉우리를 넘었는데, 하늘에 닿을 듯한 봉우리가 셋이었다. 한 치의 발걸음으로 기어올라 하루 종일 40리를 걸어 다전에 이르러 참찬 면우 곽종석을 만났다. (중략) 원컨대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하고 마침내 돌아갈 짐을 꾸렸다.<sup>56)</sup>

이규준은 〈입가야산기〉의 서두에서 가야산을 유람한 뒤에 차밭에 거주하고 있던 곽종석을 만나러 험준한 봉우리를 넘어갔다고 하였다. 그가 가야산을 유람하였다고 밝히면서도 그 여행지에서의 견문과 감흥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여행의 목적이 곽종석과의 만남에 있었기 때문이다. 곽종석은 한주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심(心)이 곧 이(理)라는 심즉리설(心卽理說)<sup>57)</sup>을 계승한 인물이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당시의 정세를 포함하여 이기심성 등 철학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그들의 대화는 여행경비가 동이나 이별을 할 때까지 이어졌고, 이별 후에는 ‘편지’를 통해 후일을 기약하기도 했다.

중국이 망한 것은 외국의 오랑캐가 중국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스스로 망한 것이다. 사람들은 중국이 망한 것이 관리가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이라는 것만 알고, 관리가 백성을 학대한 이유가 유학의 가르침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유학의 가르침이 끊어진 것은 문사(文辭)가 경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다. (중략) 실속 없는 문장 짓기만을 다투면서 외국의 훌륭한 정치는 배척하며 백성의 이익과 해는 오로지 소인의 손에 맡겨 나라를 팔아먹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sup>58)</sup>

56) 『석곡산고』 83~87쪽, 〈入伽倻山記〉. “叔女既觀伽倻山 自伽倻 西北踰峻嶺 嶺摩天者三 寸步攀緣 終日行四十里 至茶田 見郭參贊俛宇鍾錫 (중략) 惟願紙上承誨 遂返裝”.

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116>.

58) 『석곡산고』 84쪽, 〈入伽倻山記〉. “中國之亡 非外夷亡我也 中國自亡爾 世人但知 中國之亡 由於官吏虐民 不知官吏虐民 由於儒教失傳 儒教失傳 由於文辭浮競

위의 인용문은 이규준과 곽종석의 대화 중 일부이다. 이규준은 청나라가 망해가는 원인이 ‘문사의 경박함’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진단은 조선의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실속 없는 글쓰기’를 세상에 무익하고 인민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보다는 각지의 선유(先儒)들을 만나서 그들과 토론하면서 주장을 펼쳐 나가는 일을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결실은 1909년 곽종석에게 보내는 글에서 “선생의 말씀을 들은 뒤에야 감히 저의 억측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sup>59)</sup>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심지어 화를 내며 욕을 하는 자도 있었다”<sup>60)</sup>고 할 정도로 그와 선유의 갈등은 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당대 유학자와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의학에 대해서는 대부분 옛 의학자의 학설을 고치고, 임상에 시험했을 때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믿었다”<sup>61)</sup>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는 임상 실험에 입각한 과학적 태도를 유학에도 적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 5. 결론

석곡 이규준(1855-1923)은 1855에 태어나 1923년 세상을 떠난 유학자이자 한의학자이다. 그는 기일원론(氣一元論)과 심성정동일론(心性情同一論)을 바탕으로 부양의학을 주장하여 한의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의 글은 제자 최종락을 거쳐 손진규에 의해 문집 『석곡산고』로 간행되었으며,

---

也 (중략) 惟虛文是競 却他邦國大政 生民利病 專委於小人之手 使至賣鬻邦土 犧牲國民”.

59) 『석곡산고』 54쪽, 〈上參贊郭俛宇先生〉 “乃敢自以爲臆見之不大謬也”.

60) 『석곡산고』 126쪽, 〈墓碣銘〉 “聞者莫不驚駭 至有加以怒罵者”.

61) 『석곡산고』 126쪽, 〈墓碣銘〉 “吾於醫學 亦多革古人之說 而試之無差 故人皆信之”

그 문집에는 서(書), 제문, 부록 이외에 한시와 〈서유노정기〉(1901), 〈경도지〉(1901), 〈금강일기〉(1902), 〈입가야산기〉(1909), 〈호유일기〉(1911), 〈호상재유일기〉(1913) 등의 유기를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중심으로 이규준의 시대와 여행에 대한 인식, 그의 유기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규준은 속리산, 적상산, 계룡산, 동해안과 금강산, 서울 등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였고, 그 여행지에서의 견문과 감흥을 기록하였다. 그는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완상하고, 성리학자와의 만남과 대화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산수 체험보다는 선유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이 많다. 당시 신문의 여론이나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민족진영의 지식들은 유학의 이론에 대한 토론을 공리공담으로 규정<sup>62)</sup>하였지만, 그는 멀리 있는 선유를 찾아가서 조선 사회와 유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는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토론하고자 했지만, 제한된 여비로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고 “여비가 바닥나 여관에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아쉬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의 일기는 매일 매일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에는 기황후에 대한 오기, 날짜의 오기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지만 당대의 사정을 알려주는 기록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여행기록은 첫째, 산수 자연을 유람하는 유람과 선유를 찾아 유학에 관해 지식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여행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 둘째, 여행에 관한 내용을 일기와 노정기 등의 기(記), 지(志), 한시(漢詩)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하였으되, 매일 매일의 일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62) 강지은(2016), 앞의 논문, 287쪽.

참고문헌

- 강지은, 「20세기 초 한국 儒者의 時代認識」, 『한국문화』 75,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269~302쪽.
- 권오민, 「석곡 이규준의 인간관과 의학론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18쪽.
- 권오민·박상영·안상영·한창현·안상우, 「이규준의 생애와 사상적 경향」, 『한국사학회지』 22(1), 한국사학회, 2009a, 7~13쪽.
- \_\_\_\_\_, 「석곡 이규준의 「석곡산고」번역 연구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2(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b, 161~185쪽.
- \_\_\_\_\_, 「석곡 이규준의 「석곡산고」번역 연구Ⅱ」,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2(4),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9c, 153~166쪽.
- 김다래·박희정·미야키 케이나, 「개항기 일본인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인식」, 『역사와 경계』 93, 부산경남사학회, 2014, 65~99쪽.
- 김아연, 「〈대한매일신보〉철도가사와 철도의 표상」, 『인문과학』 55집, 성균관대 인문학연구원, 2014, 127~158쪽.
-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 대동야승』Ⅰ, 민족문화추진회, 1971, 1~764쪽.
- 유홍준 엮음, 『금강산』, 학고재, 1998, 1~343쪽.
- 박성래, 「역사속 과학인물 - 최초의 한글 전신부호 고안 '김학우(1862-1894년)」, 『과학과 기술』 3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9, 32~34쪽.
- 박연자, 「석곡 이규준의 시문과 일원이기론에 천착한 심성론을 통해서 본 인문학적치유론」,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1~73쪽.
- 박종훈, 「일제 강점기 화동 김한익의 금강산 유람」, 『국제언어문학』 51, 국제언어학회, 2022, 115~143쪽.
- \_\_\_\_\_, 「지암 정인체의 금강산 유기 일고」, 『온지논총』 76, 온지학회, 2023, 87~114쪽.
- 서지원, 「조선조 문인들의 벽 연구」, 『온지논총』 75, 온지학회, 2013, 61~90쪽.
- 성호준, 「조선후기 석곡 이규준의 유학과 의학」, 『동양철학연구』 60, 동양철학연구회, 2009, 109~132쪽.
- 송환기, 「동유일기」,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금강산유람록』, 민속원, 2019, 60~128쪽.
- 신상구, 「石谷 李圭暎의 詩文을 통해서 본 학문과 현실인식」, 『한민족문화연구』 51, 한민족문화학회, 2015, 47~74쪽.

-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2005, 1~348쪽.
- 원두희, 「일제강점기 근대 관광지로서의 금강산」, 『기전문화연구』 38(2), 경인교육대 기전문화연구소, 2017, 121~142쪽.
- 유길준, 허경진 역,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1~609쪽.
- 이종묵, 「유산의 풍속과 유기류의 전통」,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385~407쪽.
- 장정수, 「20세기 기행가사의 창작배경과 작품세계」, 『어문논집』 47, 민족어문학회, 2003, 415~447쪽.
- 정영문, 「임기현의 『금강산유상일기』에 대한 연구」, 『리터러시연구』 14(4), 리터러시학회, 2023, 593~618쪽.
- 조규익, 『고전시가의 변이와 지속』, 학고방, 2002, 1~522쪽.
- 황원덕, 「석곡 이규준의 부양론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2(2),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99, 15~53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116\(2013.11.10. 검색\)](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116(2013.11.10.검색)).

## ABSTRACT

## A Study on Lee, Gyujun's Travel Records

Jeong, Young-moon

Lee, Gyujun (1855-1923) was a philosopher of the Joseon Dynasty and an Oriental medicine scholar who developed modern Oriental medicine based on clinical experiments. He lived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sometimes traveled for the purpose of sightseeing. During his time in Joseon, Confucian ideology was on the decline, and Western civilization was gaining influence due to modernization efforts. This period of both spiritual and material transition led to societal upheaval. And he tried to understand these problems through conversations with senior Confucian scholars.

Since the senior Confucian scholar he sought to converse with lived far away, he planned and carried out a long-distance trip to meet him. As a result, he was able to travel to many regions, including Songnisan Mountain, Jeoksangsan Mountain, Gyeryongsan Mountain, the east coast, Geumgangsan Mountain, and Seoul, and wrote about his experiences and impressions at those travel destinations in Chinese poetry such as <Seoyu Nojeonggi(西遊路程記)>(1901), <Geumgang Ilgi(金剛日記)>(1902), <Ipgayasangi(入伽倻山記)>(1909), <Hoyu Ilgi(湖遊日記)>(1911), <Hosangjaeyu Ilgi(湖上再遊日記)>(1913), and <Gyeongdoji(京都志)>(1901).

His diary entries were not daily records of activities but focused on significant events. While he did not record a wide range of content in his travelogues, he approached his subjects by selecting and documenting only 'reliable information.' These records were compiled and published as 『Seokgoksango』 through the final editing by Son, Jingyu.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Lee, Jingyu's trave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travel records, focusing on 『Seokgoksango』.

**Key Words**

Lee, Gyujun, Travel Record, 『Seokgoksango』, reliable information, the late Joseon Dynasty

논문투고일: 2023.10.15.

심사완료일: 2023.10.31.

게재확정일: 2023.11.02.